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5. 면류관 가지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빛나던 주님의 삶을 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탐욕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진부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혼란스런 마음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열정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상실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을 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주시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골1:12-14 ..... 인도자

♠ 교 독 문 ..... 50. 빌립보서4장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김지은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97. 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13:22-33 ..... 인도자

II. 골3:1-11 ..... 이형숙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주님 계신 곳으로 ..... 김재흥 목사

II. 믿음, 새 삶의 현관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낙심한 이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만나는 이들의 가슴에 평화와 사랑을 파종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남선녀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를 경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평화의 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 잡기/김기석 목사	성서의 평화(17)/김기석 목사
기도 : 홍순구 권사	기도 : 광권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김준호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광혜자	허정운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김준호	하현철 구명자	안정숙 박홍재

##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최초의 죄에 대한 벌이다. 말하자면 모든 죄는 배은망덕에 대한 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알았던’ 이방인들은 그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다(롬1:21 참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체험할 때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한다.

찬미와 감사의 제사인 성체 성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타고 있는 용광로이다. 그 희생 제사 안에서 예수께서는 성부께 감사드리며,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시고 바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 제사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희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번제 이상의 것’이다(호6:6 참조).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부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것이 된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영적 생활에서는 사랑이나 미움에 대해 무관심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미지근한 태도가 그토록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까닭이며, 미지근함은 사랑으로 가장된 미움이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탁 털어놓고 사랑하지도, 탁 털어놓고 미워하지도 않는 영혼의 미온성은 곤경에 빠지지 않고 가상(假想)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일상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은 곧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으로 응답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참된 감사와 위선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둘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감사는 그

자체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두뇌의 작용 이상의 것, 공식화된 단어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머리 속에서 인지(認知)함으로써 받은 은혜에 대해 마지못해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함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들이쉬는 모든 호흡이 그분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이 은총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그 무엇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무응답일 때가 결코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에 눈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풍문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든다.

-토마스 머턴, <<고독 속의 명상>> 중에서

## 고독의 시간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곤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소외됨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비어 있고, 자유로우며, 고요하고, 평화롭게 혼자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외로움과 그 외로움의 진정한 이유를 대면하기 위하여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대면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하겠지요.

어쩌면 좀처럼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친구에게로 달려가기보다는 깊은 고독에 빠져 세상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한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영혼의 정원>> 중에서

## 하늘에 쓰는 편지

-이성선

밤마다 하늘에 편지를 씁니다.  
옷 벗는 길을 묻고자 하여이다.  
사랑의 길을 알고자 하여이다.  
껍질에서 깨어나는  
저 밤누에의  
깊은 고통 곁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흐린 호롱불 소리 없이 타오르는 밤에  
날개를 주소서.  
순결한 그 시간에  
당신에게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뜨고  
가까이 숲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무들은 알몸의 악기로  
하늘의 호수를 받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집은 어디오이까.  
당신이 펴주신 백지 위에  
다시 어리석은 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이한림 김명희 김준우 우순덕 전영웅 김순복 노용래 정현주 안종일  
김애경 박성수 이선림 권미숙 박홍엽 무명5

###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김남종 오복순 노미향

###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양재성 임미심 김재흥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박옥식  
한상의 김정길 최숙화 유증희 이재문 한선희 최윤희 이인섭 정복순  
한진실 권명자 이상훈 심정은 김종구 박홍엽 권미숙 이한림 김명희  
김용길 최영혜 이봉옥 강승모 오진훈 노순옥 유형준 김현미 백용식  
노미향 무명2

생일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장영숙 김용길 최영혜 이선림 이정은 김순복(누계- 24,900,000원)

##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봉헌** : 예배 중에 십일조 헌금 혹은 월정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십시오.
2. **오후집회** : <신약성서의 맥잡기>라는 제목으로 연속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 **청년집회** :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새롭게 모입니다.
4. **재무부회의** : 오후 집회 후에 구역회 준비를 위한 재무부 회의가 있습니다. 재무부원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단비교회 쌀** : 유기농으로 지은 단비교회 쌀 주문 받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마련된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구역회** : 다음 주일(21) 오후 1시 20분에 2층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구역회원은 목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회장, 당회 서기, 청년회장 등입니다.
7. **청년회 수련회** : 청년회 겨울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때 - 19일~20일                      곳 - 김포 능동교회 (이정복 목사 사무)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김기석 (생일), 송동준, 김진경 (어머니 생신)

< 새교우 소개 >

2704 최종미 소속: 10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